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미사

기도서 496면 (C해)

제1독서 : 2역대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
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 22).

□ 감론



신앙의 등불 성 김대건

김 순 태 신부

역사는 세월의 퇴적물로써 남아 있는게 아니라, 인간들의 생존에 대한 투쟁으로 엮어져 간다. 이러한 생존의 투쟁은 더욱 가치있는 삶을 지향한 것이거나,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래서 짧은 한 토막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인간들의 몸부림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하나의 역사를 마디 마디 해부하고 비추어봄은 흑백을 가리는 사실(史實)의 규명을 넘어서, 보다 가치있는 생존을 위한 미래 지향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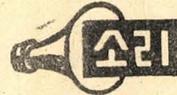
우리가 200여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재조명하여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는 것도, 하나의 연례행사를 넘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결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가장 고귀하게 간직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신앙의 불모지를 최후 한순간까지 피로써 가꾸어 놓은 선조들의 투혼적인 신앙적 유산이다. 이러한 초기 수난의 역사를 하나씩 들춰내 마다 우리는 참으로 눈물겨운 감동으로 숙연해진다.

1784년, 우여곡절 끝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면서, 갓 돌아난 신앙의 새싹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무지와 원한에 얽힌 보복으로 근 100여년동안 수많은 새싹들이 무참히 찢리어 나갔다. 그러나 짜르면 짜를수록 그 새싹들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힘차게 줄기를 돌아났다. 그중에도 성 김대건·안드레아는 더욱 강인했던 신앙의 줄기로서 가장 고귀하게 바쳐진 밑알이었다. 그의 생(生)은 시작부터 이미 하나의 순교적 삶이었다. 따뜻한 부모 곁을 떠나 마카오를 향한 온갖 험난한 유학길을 갖 15세의 여년나이로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더욱이 복경과 번문을 수습차례 왕복하면서 헤일 수 없는 밤을 하늘로 지붕삼아 노숙하였고, 때로는 겹쳐 쌓인 피로와 며칠씩 굶주린 탈진상태로 혹독한 추위와 눈길속에서 동사 직전에 깨어난 적도 있었다. 특히 페레올(Ferréol) 주교와 다블뤼(Daveluy) 신부의 영입을 위해 산더미같은 파도와 사나운 풍랑으로 거의 찢겨나간 일엽편주의 항해는 도저히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이기도 하였다.

1845년 8월 17일 한국 최초의 사제로 서품된 김 안드레아 성인은 바로 입국하여 한창 젊음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그 이듬해 9월 16일 하느님께 바쳐졌으며 올해 그 140주기를 맞는다.

김 안드레아 성인은 신앙의 미로에서 서성이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길잡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히 빛날 신앙의 등불이었다. (황등 주임신부)



참기만 해?!

어느 날 아침, 시내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은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여러 상황들이 또 다시 3백여 품목을 수입자유화하게 했으니 국민적 차원에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온 국민이, 특히 외제가 아니면 순조차 쉬기 어려운 특수체질의 상류층이 경청해야 할 한 마디가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한 번 쯤의 호기심이 아닌, 덮어놓고 외제만 좋다는 허영심이 사실 우리의 큰 병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말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처럼, 수상이 제발 외제품을 쓰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얼핏 생각하면 일리가 있으나, 상황을 무시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일제는 그야말로 세계 최상의 제품인데, 일본인 누가 눈을 판데로 돌리겠는가! 국산품의 질만 우수하다면 우리의 외제 선호 사상에 대한 우려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마다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해온 것이 벌써 몇해인데, 아직도 국산품의 질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산품의 질이 나쁘더라도,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참고 애용하자는 주장도 애국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온갖 특혜로 높은 성장과 큰 이득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만 참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제헌절이 있는 이 7월, 시국은 헌법 논의로 열기가 높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해야 한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논쟁의 소리가 높다. 거기다가, 현행 헌법을 고수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다. 아무리 정당정치라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소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여지기까지 한다. 아직도 더 참으라는 말인가! 직선제는 간선제든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순정이 산책



그들
주여!
도
와
주
심
시
요

□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인 김대건 신부의 편지

「리브와 신부 좌하」

—1845년 3월 27일

공경하올 신부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엔 지극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 각하를 모시고 몽고를 출발하여 번문까지 아무 일없이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를 맞으러 온 조선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전교하러 입국하는 데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다고 주교님께 말하였습니다. (생략) 그러자 주교님께서서는 제가 먼저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고 자세히 탐지한 후에 당신의 입국을 주신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페레올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교우들을 따라 밤중에 출발하여 이튿날 저녁에는 의주읍 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 아무 곳에서 서로 밤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교우들을 앞세워 보내고 저는 홀로 의주에서 한 20리 가량 되는 곳으로 가서 아주 어둡침침한 산짜라기를 찾아들어 울밀한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눈은 사방에 길길이 쌓여 산천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혼자 너무나 심심하여 몇 번이나 매괴신공을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두움에 잠겼을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을 떠나 읍을 향하여 나가는데 발자국 소리까지 없이 하려고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바람에 불려 다섯 자 혹은 열 자나 눈이 쌓인 곳이 종종 있는 험한 길을 이리저리 둘러, 겨우 약속하였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교우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두 번이나 읍내로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중략)

이제 저 혼자서 서울로 가자니, 이것은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여비도 없고 옷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자니 그것 역시 막연한 일이며, 더구나 조선으로 올 신부님들의 길이 아주 끊어지거나 없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생은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와 근심에 억눌린 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거듭머미 옆에 쓰러져 누워있었고 먼동이 틀 때까지 인간적인 모든 도움에서 소외된 채 천주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찾아다니는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주의 은혜로 서로 만나,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천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략)

서울서는 교우들이 장만해 둔 집에 거처하게 되었으나 교우들의 호기심과 말조심이 없음을 염려하여 아무도 임의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조심스럽고 필요한 교우 열명에게만 저의 귀국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정부에서 벌써부터 저희들이 마카오로 간 사실을 알고 들어오는 대로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

선에 들어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니께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교우들에게 엄중히 부탁했습니다. 방안에 갇혀 있는지 며칠후 저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근심이 종종 괴롭히더니 마침내 병에 걸려, 마치 오장육부를 쪼어내는 듯이 가슴과 배와 허리를 지독히 앓았습니다. (중략)

지금은 병은 다 나았으나 몸이 몹시 허약하며 한 20일 전부터는 안질이 생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처지의 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천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페레올 주교님과 다른 전교신부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고국을 떠나 마카오, 마닐라를 전전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대건이 이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삭발례(削髮禮)를 받고 교회법 소정(所定)의 사품(四品)의 소품과 차부제품(次副祭品)을 거쳐 사제서품(司祭叙品)의 바로 직전인 부제품에 올랐다.

☆1845년 초 이미 조선 교우와 약속한 바에 의하여 부제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를 모시고 번문(邊門)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영입차 마중나온 조선 교우와 의논한바 주교는 조선 입국을 단념하고 김대건 부제의 귀국을 지시했다. 이에 김대건 부제는 거반(去般)의 의주(義州) 국경선 통과의 경험을 이용하여 고생하기는 했으나 무사히 국경을 넘어 조선교우들의 선도(先導)에 따라 한양에 도착했다.

실로 그 자신이 마카오 유학차 떠난지 10년만의 귀국이었고 귀국을 위해 만주서 동분서주한 지 4년만의 일이었다. 산천은 여전하건만 조선 교회의 사정은 결코 밝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능하고 열성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동으로 조선교회는 기해년(己亥年)의 대박해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영신을 돌보아줄 한명의 성직자도 없었고 많은 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산간벽지로 숨어들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김대건 부제의 부친도 참수되었고 그의 모친은 살아남기는 했으나 아무도 돌보미 없어 노두(路頭)를 방황하고 있는 기막힌 정경이었다. 인간 김대건으로 어찌 모친을 그리는 마음 없었겠고 또한 모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효심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모친을 찾아뵈지 않았다. 한달음에 모친에게 달려가야 하는 혈육의 정에 앞서 그에게는 천지(天地) 대군주(大君主)로서의 천주에 대한 의무가 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민족의 구명이라는 대의(大義)가 보다 앞서야 하는 공인(公人)으로서의 책임수행에 충직했던 것이다. 모친을 찾아뵈지 못하고 다시금 청국행을 계획하여야 하는 김대건 부제의 가슴은 어떠하였으랴.

☆ 대입 종합반·단파반
감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냉난방시설 완비)

全州 英中學院

조흥은행 앞

☎ 82-3537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

이승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1. 주교님 해의 교회 사목방문차 출국 : 6일~8월 12일까지,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7일 오후 8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3. 성미후원회 월례미사 : 7일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4. 전주교구 대학생 지역대회 : 9일~12일, 대상-교구내 젊은이, 일정 : 여산→천호→고산→전주, 접수-가톨릭센터 대학생회 사무실, 참가비-3,500원
 5. 전주 파티마의모후 레지아 제1차 제5기 간부피정 : 17일 오전 9시40분~17시 장소-가톨릭센터 대강당, 참가비-3천원, 대상-간부 및 간부 후보자
 6. 7월중 전주 레지아회의 : 20일 14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상-산하 평의회 간부 및 직속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7. 테클라 모임 : 수도 성소를 지망하는 여성, 오늘 오후 2시, 성바오로 서원
- ※ **축! 영명 성 에릭 (10일)** : 윤에릭 신부님, **성 베네딕도 (11일)** : 박성운·김반석·김병운·김용태·현유복·권이복·유영도·양경배 신부님 축하합니다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7월호 안내

주님의 날 7월호는 노동자의 기도, 7월의 말씀, 크리스찬 가정소개, 대세에 관한 교리, 그림명상, 조상 제사와 최초의 순교자들, 빛과 열에 대한 생활철학, 이 해인 수녀의 시-발노래, 젊은 농부에게 보낸 서간, 옥봉본당 수산공소 소개, 공소예절 안내, 음력을 결한 축일표, 교구소식과 행사표 등이 실려있다. 특히 7월 농사안내로써는 여름철 가축관리와 여름철에 알아두어야 할 농약중독 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다.

홍보국 발행 가격 300원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46장 복음 : 루가 19 : 41~44

잡 간!

—전국에서 제일 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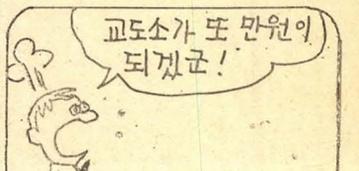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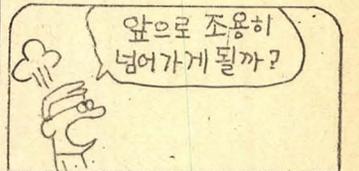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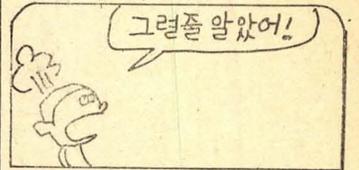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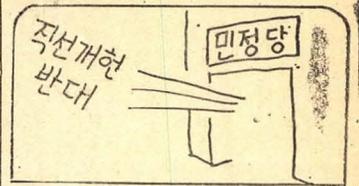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오늘날 여러가지 홍보수단의 영향을 타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들 한다. T·V나 신문등 매일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거짓이, 편파보도니, 하면서 거부 반응을 가지기도 하며 때로는 거짓보도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속기도 하는 무지함을 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진실보도와 그 수단에 의문하는 것을 보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간행물-읽어보지도 않고 이미 그런 고정적인 선입감에 젖어버렸단 말인가? 우리 교구 교회간행물 구독률이 전국 끝자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나왔다. 전국 단위의 중요 간행물(가톨릭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 사목, 소년지 등) 구독률이 전국에서 끝자라면 각종 교회서적 독서량은 또 얼마나 될까?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교구 자체 홍보물인 「술정이」 주보와 어린이를 위한 주보 「어린이」, 그리고 농촌본당과 공소사목을 위한 월간 「주님의 날」 등의 구독률이 전 교구민의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 단위의 유일한 가톨릭 신문은 0.2%.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 50주년이니, 자치교구나, 큰소리 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성과 신앙심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외적인 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좀더 깊은 영성과 순교자 후예다운 신앙을 더욱 깊이하기 위해서 교회간행물을 구독하고 교회서적을 읽어야 한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교회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간행물 취급업무를 개선, 성바오로 여자수도회(성바오로 서원)와 협력하여 각 본당을 순회 간행물과 책자 등을 소개하고 구독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가톨릭신문 구독자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정순태 다투)를 본당에 파견, 직접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 1부라도 구독하자. 교회서적을 읽자. 「가톨릭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가톨릭 출판물을 구독해야 한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교회의 온갖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 하며 가톨릭 출판물의 해설을 통하여 참된 크리스찬 정신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황 훈령, 일치와 발전 43)

요십이 (674) 김병오



복지회 회원모집

노인을 모신 가정에서는 필히 본회에 가입하시어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크리스찬적인 상부상조 정신이 돈독해지리라 믿습니다.

◎본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남녀 60세부터 75세)

◎본회 상조방법과 절차

*본회 회원은 자조 1,000명으로 구성하며 회원 1인 사망시 상조금 1,000원을 본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가입후 100일이 지나 사망할 경우 정성된 성금(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천주교 노인복지회

대표 임화길(안드레아) 신부
강현홍(사도요한) 신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5-8(서정빌딩 221호)

접수·문의 : 서울(02)752-2407

각종 빵·선물용 케익·음료수·팔빙수·아이스크림

*단체주문 환영 프린스제과

구.덕진역 광장
거성아파트 앞
조정훈(크리스티나)
☎ 4-9379

복합·생선 매운탕 전문

자보회관

도청 후문(자동차보험 앞)
☎ 6-3209
김광열(야고버)
김영애(아녜스)

미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여행용가방·007가방·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걸(글라리아)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무회장 노 인 석

1.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11일은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우리 본당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합시다
축하식-13일 공식미사 중에
 2.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순교 성인들을 본받아 사랑과 시간의 나눔, 물질의 나눔 등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3. 대의원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자구역장님 사무회 임원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축! 첫영성체식: 오늘 오후 3시, 어린이미사중에
 5. 신축기금 납부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과 약속한 신축기금 납부기일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못내신 가정에서는 가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남은 개월수에 따라 분납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6. 불우시설 방문: 13일 오후 1시(본당에서 집결)
학생회에서 자립원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본당신부님배 낚시대회: 낚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참가자는 17세이상의 남녀 교우), 일시-17일, 장소-운암저수지
접수마감-13일까지 본당사무실
 8.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자모회에서는 녹음기와 메가폰을, 장성복 부부님이 탁구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9. 공소 순회미사: 12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10. 축! 신우아파트에 레지오 창단: 황금궁전pr 탄생단장-정영자, 부단장-강영배, 서기-김진순, 회계-장순영, 수고하시겠습니다
 11. 금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 봉헌-모보일 부부
신자기도-윤석인 부부, 촛불봉헌-문명식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 봉헌-신용진 부부
신자기도-박준근 부부, 촛불봉헌-최봉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3,400원 신축금: 1,542,000원
아파트성당: 144,880원 교무금: 523,330원
아파트성당: 144,5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 " 보좌신부 김 성 원
수녀원 2-5238 사무회장 김 성 원

1.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2. 대학생 성지순례: 9일~12일(여산·천호·고산·봉동)
 3. 자모회 릴레회: 10일 오전 10시
 4. 성우회 단합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5.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6. 어머니성가대 릴레회: 11일 오전 11시
 7. 주민등록등본 1통씩(전세대) 사무실에 제출 바람
31일까지
 8. 애령분파위원회: 8일 저녁미사 후
이정우·허재석·김중근·허순덕·유순자·조정숙·신영희
 9.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최창기 ②강만춘
봉헌-오장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김운자 ②안운정
봉헌-조성호씨 부부
해설·독서·봉헌하시는 분 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0,200원 교무금: 561,340원
교황주일헌금: 126,48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무회장 이 정 우

1. 교무금 납부주일: 7월분 교무금을 오늘 내주세요
 2. 감사! 전자출근 기증: 하신광·황대호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3. 주일미사: 절대 빠지지 맙시다!
 4. 공사헌금 협조요망: 구역장님의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1,850원 교황주일금: 52,400원
교무금: 3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향
사무실 " " 사무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반장님 릴레회: 13일 공식미사 후
 2. 사제양성후원금 신입자: 김광탁 1구좌 감사합니다
 3. 감실구입 헌금: 익명-1만원, 익명-5천원, 김화영-5천원, 함옥심-5천원, 김덕동-5천원, 강기호-1만원, 문치구-5천원, 익명-1만1천원 감사합니다
 4. 2성당 돈보스코회 설립: 회장-이메테사
부회장-김울리안나, 회계-정사라, 서기-박수산나
 5. 금주봉헌: 본당-강기호 부부, 2성당-박찬주 부부
차주봉헌: 본당-유용산 부부, 2성당-송남용 부부
 6. 차주전례
본당: 해설-김배근, 독서-①남정호 ②진성복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김화영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본당-299,330원, 2성당-126,640원
계-425,970원 교무금: 361,000원 미수금: 50,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무회장 김 병 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3. 주일학교 자모회: 8일 오전 10시30분
 4.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병자방문: 11일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5일~8일(3박4일)
화산천주교회에서 교육중인 교사들 위해 기도 바랍니다
 7. 감사헌금: 김영순·김길주 부부-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986,630원 50주년 헌금: 494,150원
교무금: 712,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무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축! 영세: 5일
영세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예비신자 모집: 7월 한달동안
 3. 첫영성체 어린이들 고백성사: 12일 오후 2시
 4. 가톨릭 기도서: 주일 미사중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생활성서·성가 테이프: 사무실에서 판매
- 지난주 봉헌금: 666,390원
교무금: 925,500원